

[별지서식 제1호 앞면] 본 광고사전검토폰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접수번호	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				처리기간
01-01-E-2001127					7일
신청자명	주식회사 비츠로미디어	대표자	박해균	사업자등록번호	206-86-35396
신청자주소	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51 (주)비츠로미디어			연락처	담당자명: 공재철
					연락처: 010-7459-0307
					팩스: 02-465-6767
광고 상품명	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	광고주명	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	광고매체	교통
대행사명	그랑플레이스	제작자명	5.18 진상규명위원회	시간	30초 (A안)
출연모델				성우	
배경음악	곡명 : 가수 :				
참고사항			상업문 내용(자막 및 멘트)		
광고내용	5.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백 및 증언문의광고		멘트] 시신조차 찾지 못한 자식을 어머니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발 울아들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. 우리는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계엄군이었습니다. 너무 죄스럽고, 너무 아프고, 미안합니다.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용기있는 고백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. 자막] 좌상단고정) 상담 및 문의 02-724-9121 하단) 5.18민주화운동이 발생 한지 40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가해자, 피해자가 손잡고 국민과 함께 5.18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 입니다. 5.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참여한 장.사병들의 진실한 고백과 증언을 기다립니다. 1980년 5월, 광주의 아픔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행방불명자 78명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답해주세요		
심의구분	초심 O				
	수정심				
변경내용					
첨부파일	518 유튜브버브스지하철용-30ver Master.wmv				
비고					

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2020년 12월 16일
신청인 주식회사 비츠로미디어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20년 12월 1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0-E1-12-4	
	기타		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표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상업문 내용(계속)			
우리는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계엄군이었습니다 "너무 죄스럽고 너무 아프고 미안합니다" 여러분의 고백과 증언 신변 안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-724-9121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			
기타		면번호	2

심의의결	심의결정	방송적합	2020년 12월 18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0-E1-12-4	
	기타		